

# 여수세계박람회

## 엑스포 주역 3인 인터뷰

### “大항해 시작, 여수 바다에서 인류의 미래 꿈꾸세요”



강동석 조직위원장

“아름다운 여수 바다에서 인류의 미래를 꿈꾸고 행복을 만끽하세요.”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강동석 위원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한국의 국력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세계 각국에서 엑스포를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만큼 한국의 뛰어난 기술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93일간 대항해의 시작인 만큼, 많은 감동과 감격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박람회가 160년 엑스포 역사상 가장 빛나는 행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박람회에 대해서는 “한국 남해안의 중심인 여수에서 104개국과 유엔 등 10개 국제기구, 23개 한국 자치단체, 기업들이 참여해 지구촌 기상변화의 해법, 21세기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을 해양에서 찾는 세계인의 축제”라고 설명했다.

또 “바다의 소중함과 무한한 가능성을 관람자들에게 흥미 있게 보여줄 전시관들이 많다”면서 “관람객들은 즐겁고 신나는 문화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제시설을 갖고 관람객이 중심이 돼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게 이번 박람회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폐막에 맞춰 발표하게 될 여수선언은 인류가 바다를 어떻게 보전하고 지혜롭게 운영할 것인지 등을 세계 각국에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 로세르탈레스 BIE 사무총장이 전하는 여수박람회

### “미래 박람회 방향 제시한 훌륭한 전시”

“앞으로 세계는 미래 지향적인 여수세계박람회를 배워갈 것입니다.” 세계박람회기구(BIE) 비센테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13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수는 성공적인 개막식을 준비했고, 전야제 등은 매우 아름다운 공식적인 행사였다”고 평했다.

또 “계획했던 목표를 하나씩 이뤄가며 국제관 등 모든 전시시설들이 훌륭하게 준비됐고, 운영도 잘 되고 있는 성공적인 박람회”면서 “첨단 기술을 접목한 이번 박람회는 미래 박람회의 방향을 제시해 준 훌륭한 전시”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의 기술을 잘 활용해 훌륭한 전시 시설이 갖춰졌으며 박람회 주제인 ‘바다’도 잘 표현됐다”는 점에

서 여수세계박람회는 시대적으로도 중요한 박람회”라면서 “규모면에서 사상 최고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열린 어떤 박람회보다 아름다웠다”고 덧붙였다.

개막 당일(12일) 예상에 못 미친 관람객 수와 관련해서는 “사람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한 일부 관람객들이 개막일을 피해 다른 날 오는 것을 선호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람회 성공의 열쇠는 시민 참여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람을 권유했다.

박람회장 사후 활용문제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사후 활용은 박람회 성공에도 중요한 요소다. 사후활용 방안이 계획이 충분하



지 않으면 박람회 승인도 안 해준다”면서 “주최 도시, 조직위, 정부와 함께 사후 활용 방안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해서는 “주제관 등 구역별로 다르게 관리돼야 할 것”이라면서 “여수박람회는 사후활용 계획이 명확하며 폐막일이 가까워지면 더욱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 “불편 참아내고 질서 지키는 성숙한 시민정신 필요”



박준영 전남도지사

“여수세계박람회는 과거 어업이나 수산업, 조선 등 물류 중심이 아닌 해양관광과 해양자원 측면에서 바다를 다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전남도 박준영 지사는 지난 2007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BIE(국제박람회기구)총회에서 여수가 모로코를 제치고 박람회 개최로 확정될 때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

로 전남은 도로 교통망 등 그동안 낙후된 SOC를 확충하는 등 동북아 해양관광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면서 “서울이 아닌 여수에서 박람회가 열렸다는 점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람회 기간 가장 우려되는 숙박 문제에 대해서는 “여수와 2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광주와 목포,

부산 등 인근 도시의 고급 숙박시설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숙박시설을 개발하여 관람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애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지사는 또 “박람회 개막으로 전남 도민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다”면서 “관람객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관람하고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관람객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관람하고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관람객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관람하고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2015년 국제 전복심포지엄 여수박람회장서 열린다

2015년 국제 전복 심포지엄이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다. 전남도는 전 세계 전복 관련 전문가 등 1000여명이 참가하는 2015년 국제 전복 심포지엄을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제전복협회(IAS)는 최근 제8회 호주 대회에서 차기 대회 장소로 한국을 확정했다. 국제전복심포지엄은 3년마다 전복 주 생산국

을 돌아가며 개최된다. 전남도는 여수세계박람회 시설을 활용해 2015년 5월중에 6일 일정으로 이 행사를 열 계획이다. 대회는 전복 관련 학회와 요리대회, 양식 기자재 전시회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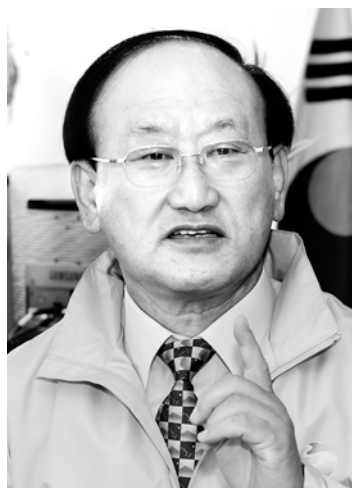
전남도는 국내 우수 양식기술 홍보와 관련 기자재 수출 등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대회 유치를 계기로 현재 추진중인 200ha 규모의 전복 양식업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인근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한국 전복의 위상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하나된 30만 시민, 마지막 역량 모아 성공시키자”



김충석 여수시장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수준 높은 시민 정신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김충석 여수시장은 11일 “15년을 준비해온 박람회를 치르기 위해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김 시장은 “박람회 준비와 개최에 쏟은 역량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30만 시민이 하나가 돼 슬기롭게

이겨냈다”면서 “올바른 음식·숙박 문화를 정착시켜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고향을 찾은 것처럼 정겹고 따뜻한 여수로 남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또 “박람회 기간 ‘환태평양도시 발전협의회 세미나’에서 세계 4대 미항임을 선포할 계획”이라면서 “박람회 폐막 후에도 마린나 시설과 은빛자 도시 건설 등을 추가해 2020년까지 국제 해양관광레저 스

포츠 수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불편함을 참고 인내해준 여수시민과 지원해준 정부, 전남도, 각급 기관단체와 언론 등에 고마움을 느낀다”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순신장군을 도와 왜적을 무찌르고 구국의 성지가 됐듯이 임진전 올해 마지막 역량을 모아 박람회를 성공시키자”고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 췌시장 “어등산 골프장, 현 상태론 개장허가 못해”

최근 영업시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골프장은 시민 휴식공간으로 사용될 테마파크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개장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11일 KBS 광주 “출발 무등의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 애초 계획대로 휴식공간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골프장 개장을 위한 허가를 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어등산 일대는 황폐화된 포사격장 부지를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자는 선의에서 출발했으며, 자금조달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해 골프

장 건립사업이 포함된 것”이라며 “하지만, 민간사업자만 이익을 보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방안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현재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의 공적률은 골프장만 92%일 뿐 전체적으로 33%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사업비도 총 3400억원 가운데 1000여억원만 투입된 상태”라며 “현 사업자의 자금능력 등을 고려할 때 나머지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현재 전담팀을 구성해 4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이 밝힌 첫 번째 안은 현재 사업자가 끝까지 테마파크를 마무리하고 그 시점에 골프장을 준공하는

것이며, 두 번째 안은 다른 민간사업자가 사업권을 인계하는 방안이다. 또, 세 번째 안은 사업자의 손해를 전제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안은 사업수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예산 협약에 따라 사업을 해지하는 것이다.

강 시장은 이와 관련 “현재 사업 시행자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사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업자가 손해를 보고, 시민이 공감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전통 침·뜸·부항

무료 공개강좌 & 수강생 모집

- 중국 중의약대학과 18년간 학술교류로 체계화된 교육과정
- 중의약대학 침구과(3년), 중의과(5년) 학점인정
-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중국 자격증 취득가능
- 중국, 미국 한의대 석박사과정 입학 및 편입가능
- 의료개방 대비, 자기 건강관리, 해외봉사를 위한 연수세미나
- 해외이민, 한방병원 설립 및 해외진출, 취업지원

**“알기쉬운 침구학” 세미나라정**

- 기본과정(4개월~주1회3시간)
- 주요과목: 침구학개론(침뜸기초, 경락경혈, 침구치료), 한방기초
- 전문과정(1년)
- 주요과목: 중국침구학연구, 중의학경혈학, 진단학, 방약학, 해부학 등

광주 27기) 5월 25일(금) 오후 2시

위치: 상촌역 1번출구에서 화정역방향으로 50m진진 3층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1544-5359

광주본원: 062)236-3516

서울본원/대전본원/대구본원/부산본원/울산본원/광주본원/제주본원

##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 (재)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초빙 공고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출연기관으로서, 차세대 고부가가치산업용 육성사업 전남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참신하고 유능한 원장을 초빙하고자 합니다.

1. 임용분야: 공무직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2. 자격요건: 3년 계약직(연임가능), 연봉제(기본연봉 8,500만원~11,000만원)

3. 임용절차: 가. 공용시험 가. 공용시험 가. 공용시험 가. 공용시험

4. 기타사항: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5. 응시자격: ○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20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있는 분

6. 기타사항: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응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 임용후보 대상자로 결정된 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전남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061-729-2632, 연구원 김상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14일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추천위원회 위원장